

미국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연구진: 자본시장연구원 강현주.장보성.정희철

발 표: 장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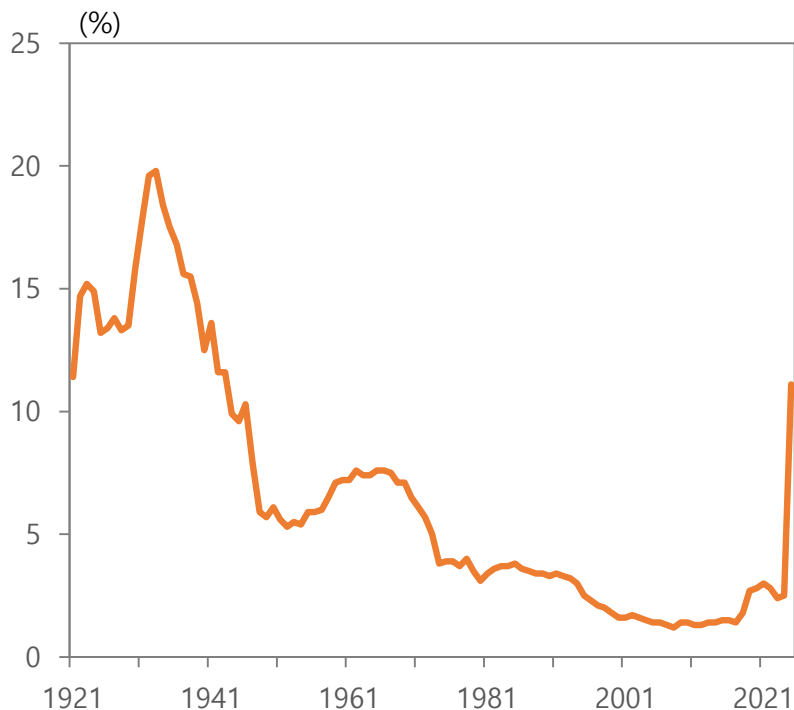
1

논의의 배경

논의의 배경

- ❖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별 및 품목별 고강도 관세 위협과 유예를 반복
 - 이에 따라 상당 기간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확대가 불가피

미국의 관세율 추이



주 : 2025년은 2025.4.2일 상호관세 부과 기준
자료: Tax Foundation

미국의 관세 위협 및 유예 사례

캐나다 멕시코

- 2.1일 25% 관세계획 발표 → 일시 유예 → 4.9일 10% 보편관세 대상

중국

- 2.1일 10% 관세계획 발표 → 3.4일 추가 10% 부과 → 4.9일 145%로 인상 → 5.12일 90일간 30% 인하

한국

- 4.5일 10% 기본관세 시행 → 4.9일 상호관세(15%) 유예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주요 언급

“현재로서는 전망의 기본 시나리오조차 설정하기 어려울 정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4.17)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말 그대로 차트를 벗어날 정도로 확대”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4.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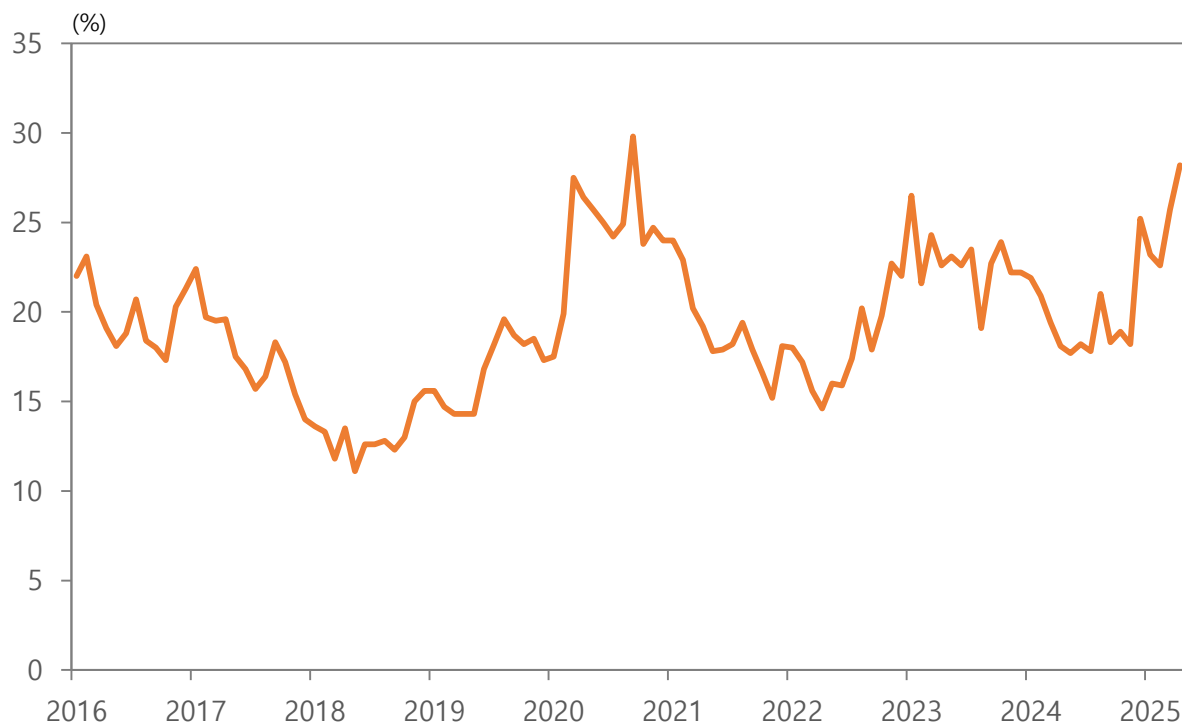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관세 자체보다 더 큰 문제”

크루그먼 노벨경제학상 수상자(4.13)

국내 기업의 반응

- ❖ 국내 제조업체들도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주요 경영애로사항으로 지적
 - 응답 비중이 코로나 시기 수준으로 확대

국내 제조업체 경영애로사항



주 : 전체 내수부진 등 14개 항목중 해당 항목을 경영애로사항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중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논의의 주요 내용

1. 미국의 관세부과에 따른 국내 경제 영향
 - 현재 기준으로 발표되었거나 예정된 관세부과의 직접 효과를 분석
2.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 영향
 -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량적 효과를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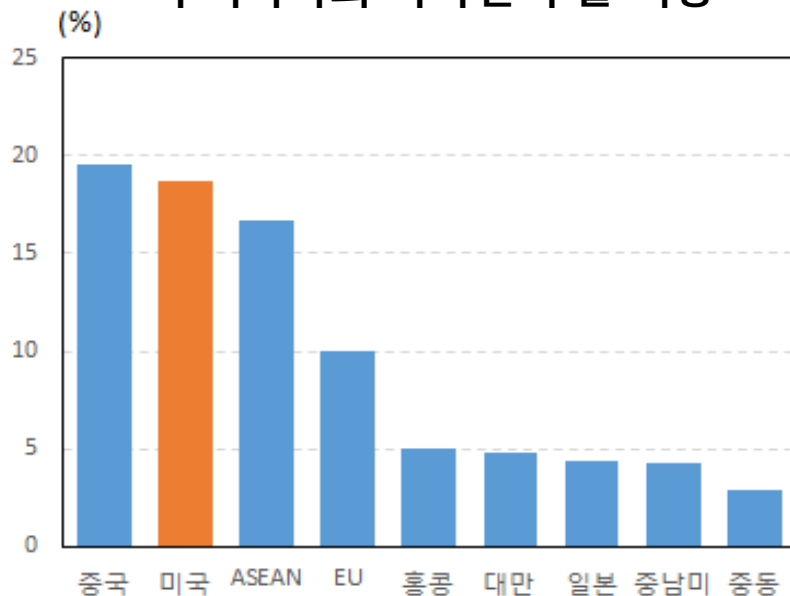
2

대미 무역 현황과 미국 관세 부과와 거시경제적 영향

현황: 대미 수출 및 주요 수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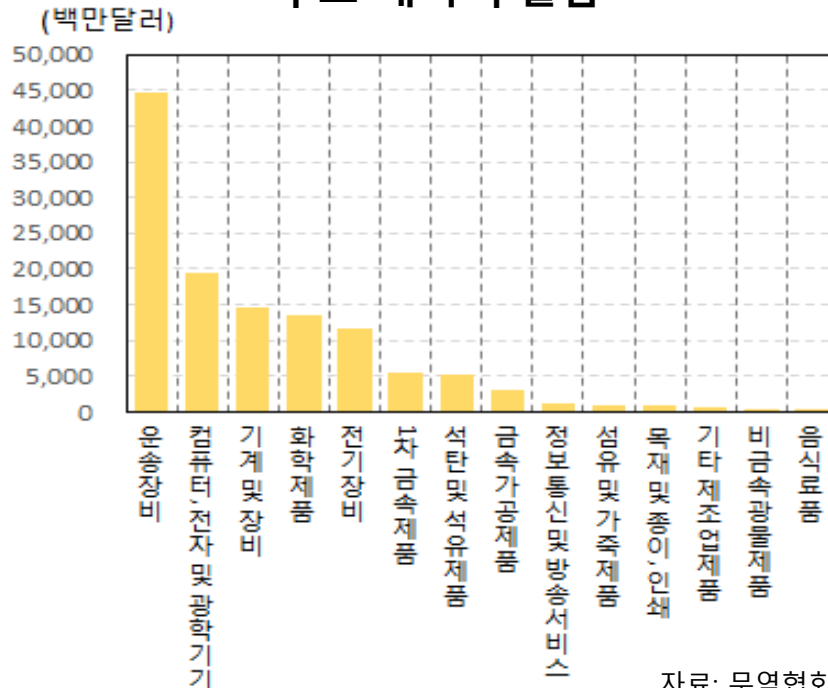
- ❖ 미국은 두 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으로 수출품 중 운송장비가 높은 비중
 - 우리나라 수출(2024년)에서 중국은 약 20%, 미국은 약 19%의 비중
 -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 및 관련 부품 등 운송장비(약 450억 달러)가 가장 큰 비중
 - 다음은 반도체 등 컴퓨터·전자·광학기기(약 190억 달러)로 운송장비의 43% 수준

우리나라의 국가별 수출 비중



주 : 2024년 수출액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대미 수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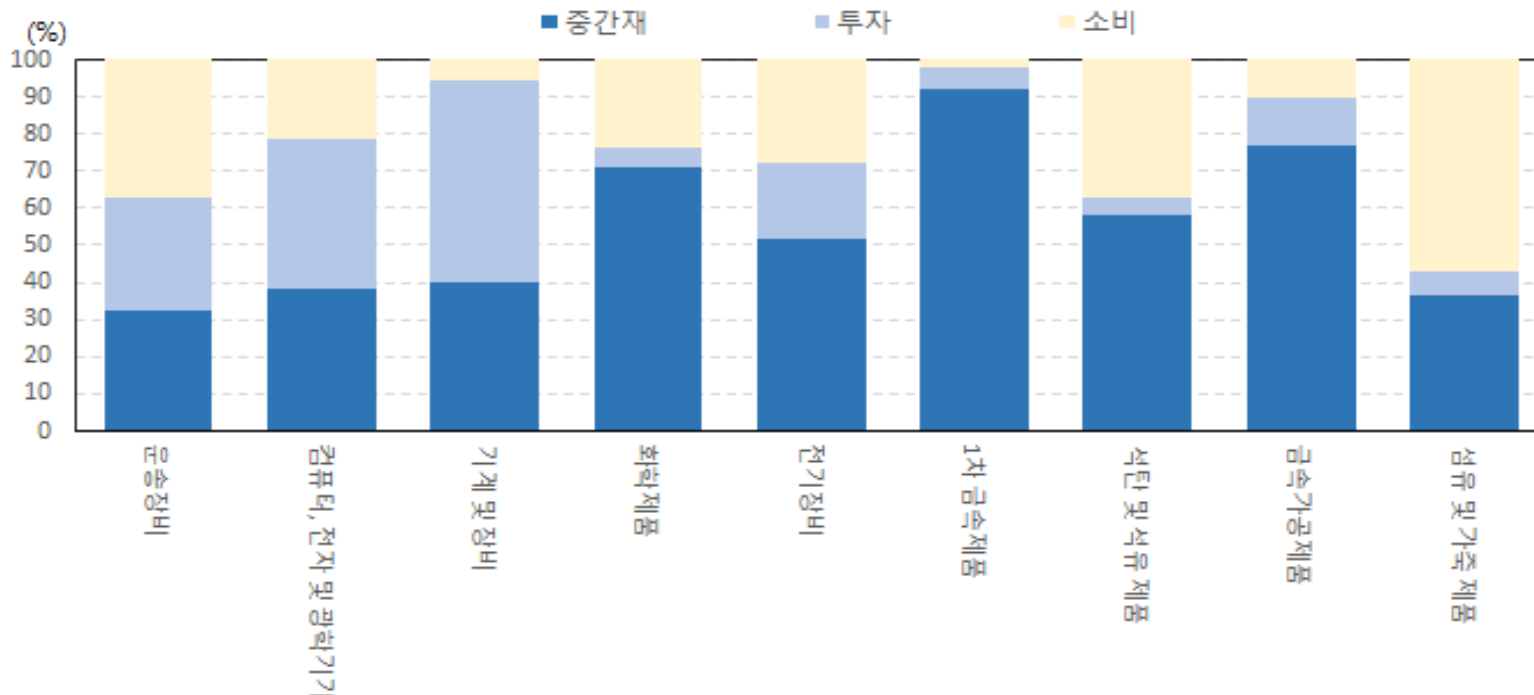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현황: 대미 수출품의 목적별 구성

❖ 대미 수출품은 기업 부문으로 공급되는 품목이 큰 비중

- 주요 수출품의 70% 이상(금액 기준)은 중간재 및 투자(재고 포함) 용도로 활용
 - 다만, 섬유 및 가죽제품(57.3%)과 운송장비(37.2%)는 소비지출(정부 포함) 비중이 큼

한국 수출품의 미국 내 용도



주 : 1) 2020년 국제산업연관표(ICIO) 이용 저자 계산

2)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 품목만 표시

자료: OECD

현황: 미국 내 중간재 및 최종재 점유율

❖ 대미 주요 수출품은 최종재 부문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미국 내 중간재의 미국산 점유율은 대체로 80% 내외인 반면, 최종재의 점유율은 다소 큰 편차
 - 단, 석탄 및 석유제품 중간재는 캐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등에서의 수입이 큰 비중
-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중간재보다는 최종재 부문의 점유율이 높은 편
 - 운송장비(2.8%)는 중국(1.5%)보다 높은 수준, 컴퓨터·전자·광학기기(2.2%)는 중국(14.7%)이 주도

미국 내 중간재의 공급 구성

	미국산 비중(%)	수입품 비중(%)	수입품 비중(%)	
			한국(%)	중국(%)
운송장비	78.7	21.3	1.3	3.4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84.0	16.0	0.8	5.6
기계 및 장비	81.4	18.6	0.9	4.0
화학제품	88.0	12.0	0.4	1.9
전기장비	79.4	20.6	0.8	5.6
1차 금속제품	84.2	15.8	0.5	1.4
석탄 및 석유 제품	61.2	38.8	0.0	0.1
금속가공제품	86.5	13.5	0.5	2.1
섬유 및 가죽 제품	83.9	16.1	0.4	6.2

미국 내 최종재의 공급 구성

	미국산 비중(%)	수입품 비중(%)	수입품 비중(%)	
			한국(%)	중국(%)
운송장비	76.6	23.4	2.8	1.5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72.9	27.1	2.2	14.7
기계 및 장비	77.6	22.4	1.5	5.7
화학제품	85.8	14.2	0.6	2.3
전기장비	70.0	30.0	2.0	16.3
1차 금속제품	73.2	26.8	1.3	0.5
석탄 및 석유 제품	91.3	8.7	0.9	0.0
금속가공제품	88.8	11.2	0.3	3.4
섬유 및 가죽 제품	57.4	42.6	0.4	2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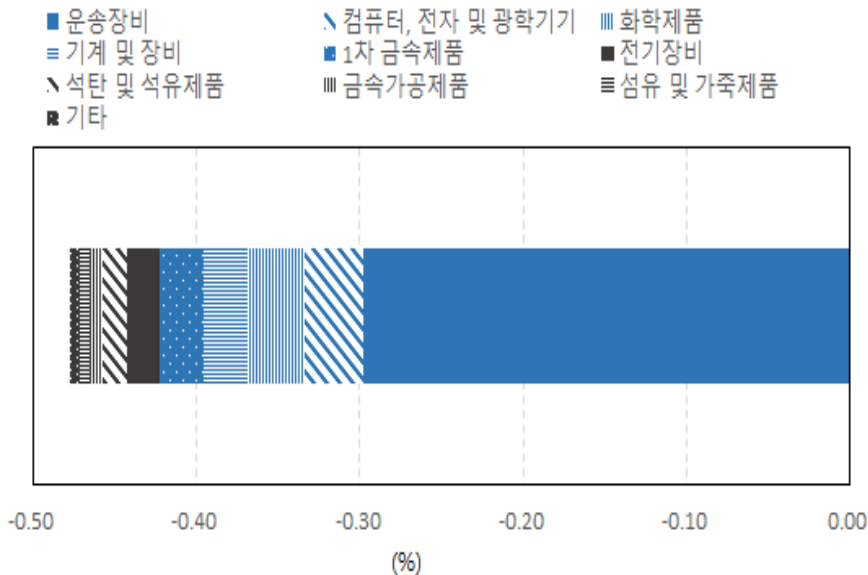
주 : 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수출액 10억 달러 이상 품목만 표시
 자료: OECD 국가 간 산업연관표(2020년) 이용 저자 계산

관세 영향: 우리나라 대미 수출품 관세 부과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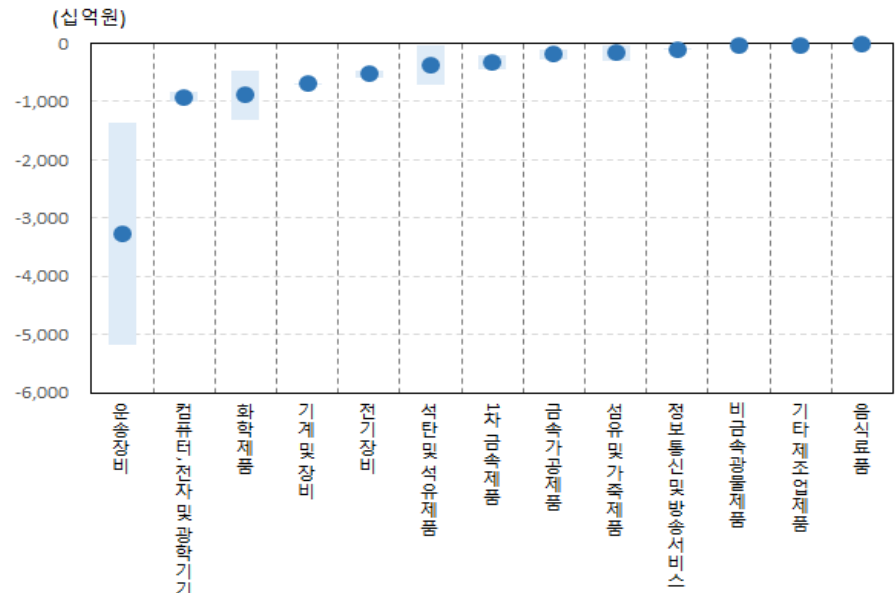
❖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국내 GDP는 약 ▼0.5% 감소

- (관세율 가정) 자동차: 25%, 철강: 25% 및 기타 품목: 10%
 - (기여도) 운송장비: ▼0.30%, 컴퓨터·전자·광학기기: ▼0.04%, 1차 금속제품: ▼0.03%
 - (관세율 10%당 VA 감소 유발) 운송장비: ▼3조 2,000억원, 컴퓨터·전자·광학기기: ▼9,000억원

품목별 관세율 적용시 GDP에 대한 영향



관세율 10%당 부문별 부가가치 감소 유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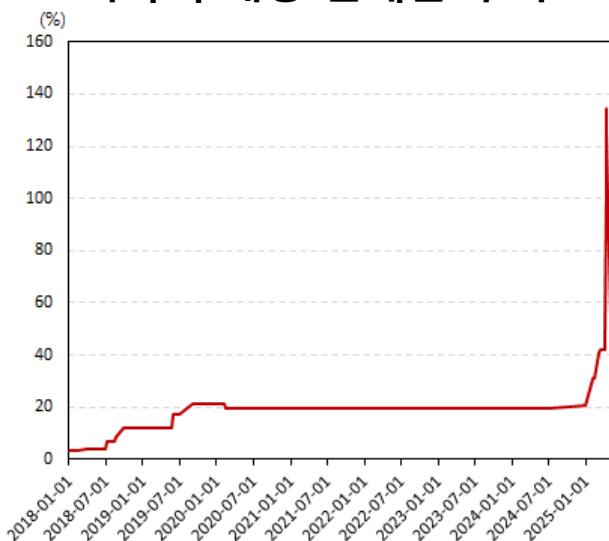
자료: 저자 계산

주 : 가격 탄력성에 따라 추정치가 상이하므로 음영으로 범위 표시, 점은 평균
자료: 저자 계산

관세 영향: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영향

- ❖ 현 대중 관세 하에서 중국 가공 경로를 통한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율(유예안: 30%)은 2024년 말 대비 약 ▲10%p 높은 수준
 - 「우리나라 → 중국 → 미국」의 경로를 통하는 대중 수출품 비중은 미미한 수준
 - 대중 수출이 미국으로 재수출되는 비중은 1.9%(2020년, 정영호 외(2024))
 - 대중 주요 수출품(전자, 화학, 자동차) 대상 분석 결과, GDP는 총 ▼0.02% 감소
 - 단, 향후 중국의 성장세, 유예기간 이후 관세율 등의 추가적인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

미국의 대중 관세율 추이



주요 대중 수출품의 미국 최종 귀착 비율과 관세의 영향

	전자	화학	자동차
대중 수출액(백만달러)	67,959	26,528	1,686
(전체 대중 수출액 중 비중, %)	(51.1)	(19.9)	(1.3)
미국 최종 귀착 비율(%)	5.8	9.9	1.7
대중 관세(+10%p)의 미국 최종 귀착품을 통한 국내 GDP 영향(%)	-0.014	-0.006	0.000

주 : 중국의 대미 수출품 가격 탄력성은 한국과 동일하다고 가정
 자료: 무역협회, 정영호 외(2024), 저자 계산

주 : 품목별 수입액으로 가중한 평균 관세율
 자료: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3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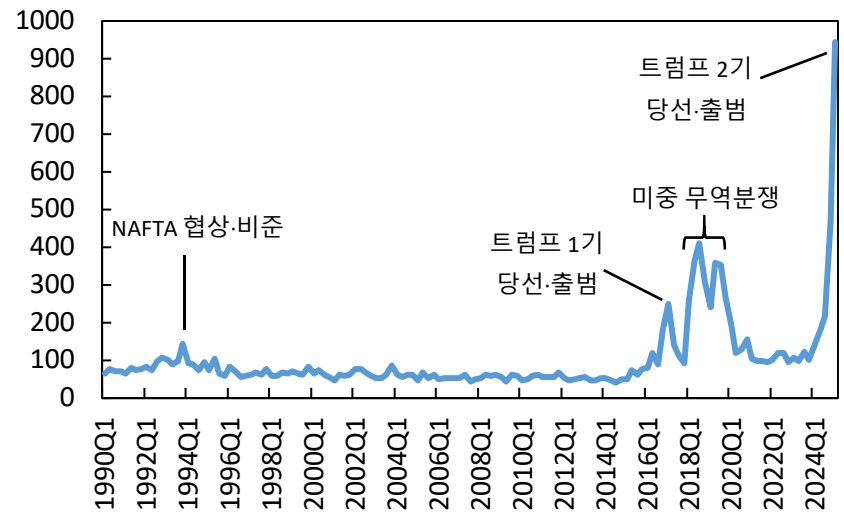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지표

❖ Caldara et al. (2020)의 뉴스 기반 지수를 사용

- 미국 주요 신문사의 기사 중
“무역정책” 및 “불확실성” 관련 키워드가
동시 언급되는 기사의 비율
- 뉴스 기반 지수는 발표된 정책의
실제 시행여부와 시행 시기,
시행 또는 비시행에 따른 결과 등
인식 가능한 불확실성을 포괄적으로 반영
(Baker et al., 2016)
- 관세 관련 키워드 뿐만 아니라 무역 협정,
무역 관계 등 다양한 키워드를 고려
 - 관세 불확실성 이외에도 협상 방향 등
전반적인 무역정책 기조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지수의 추이

(평균=100)



자료: Caldara et al. (2020)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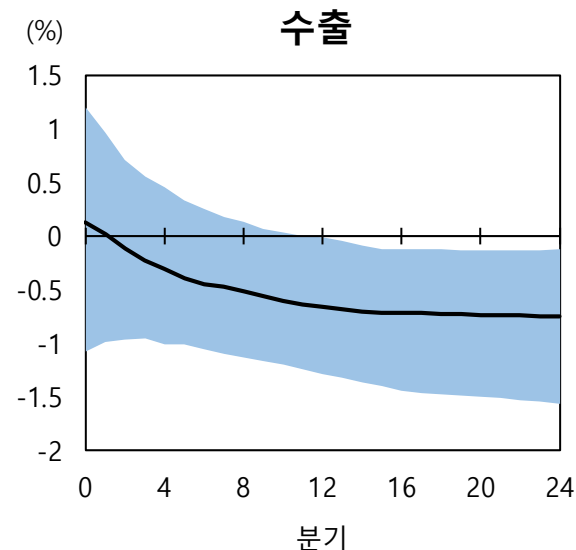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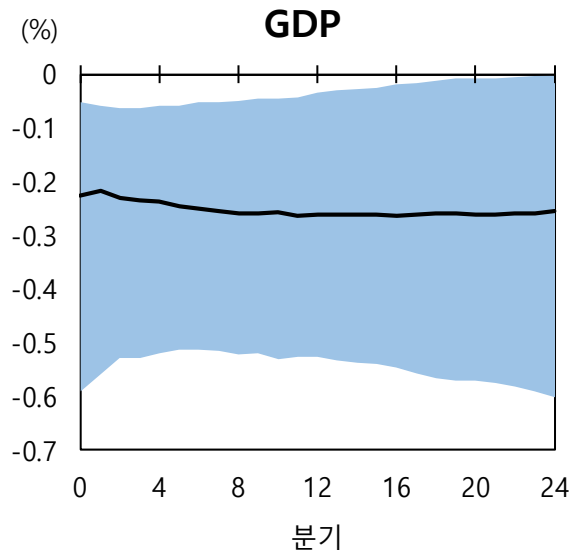
- ❖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확대는 다양한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에 영향
 - 수출기업의 설비투자 및 고용 등 비가역성이 큰 의사결정을 지연 · 축소
 - 소비심리 악화로 인한 소비 및 수입수요 감소
 - 수출 중심 경제의 특성 상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

-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
 - 미국 및 국내 거시경제변수로 구성된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모형을 설정
 - 부호제약에 기반한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하여 모형 추정 및 충격 식별
 - 미국 관세 충격과 구분된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을 식별
 -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 미국 TPU ↑, 미국 총관세율=0, 미국 수입 ↓ 등
 - 미국 관세 충격: 미국 총관세율 ↑, 미국 수입 ↓, 미국 물가 ↑ 등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국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 ❖ 미국의 무역정책 불확실성 확대 충격은 국내 GDP와 수출에 유의한 영향
 - 수출에는 다소 시차를 두고 파급되지만, 강한 지속성
- ❖ 불확실성 확대만으로도 국내 실물 경제 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
 - 실제 관세 부과 없이도 이와 유사하게 GDP 감소를 유발

미국 TPU 확대 충격에 대한 국내 거시경제변수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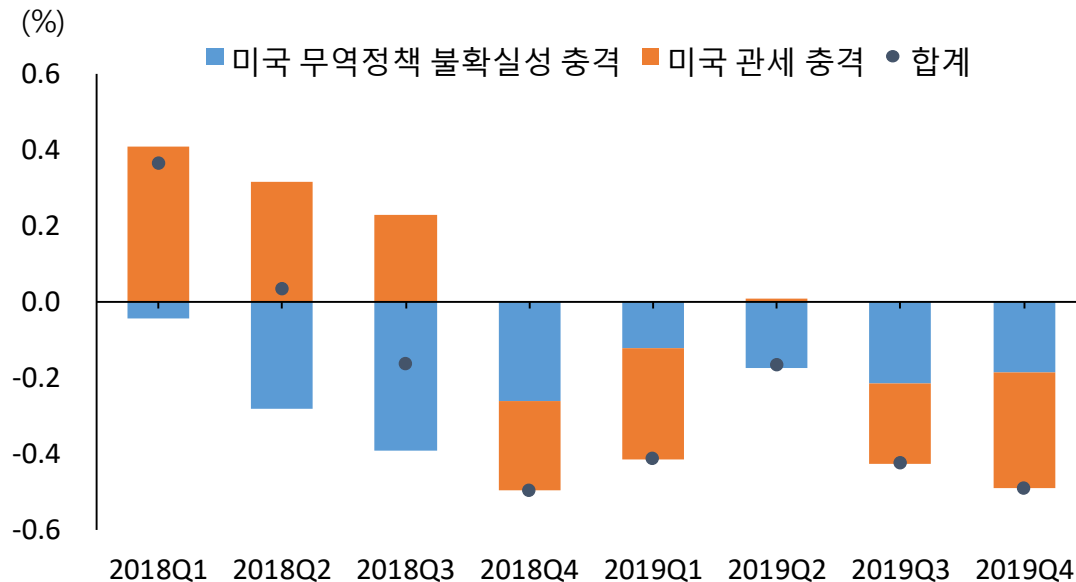


주 : 실선은 충격반응의 중위수, 음영은 68% 신뢰구간
자료: 저자 추정

트럼프 1기 미중 무역분쟁 시기의 거시경제적 영향

- ❖ 무역정책 불확실성 충격은 '18Q1~'19Q4 동안 국내 GDP에 평균적으로 -0.2%만큼 기여
 -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실제 관세부과 발생 전부터 급등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높은 수준을 지속
- ❖ 관세 충격은 '18.9월에 관세부과 대상규모가 크게 확대된 이후 '18Q4부터 부정적 영향
 - '18Q4 ~ '19Q4 동안 평균적으로 -0.2%만큼의 기여
 - 당시에는 주로 중국만을 대상으로 관세를 인상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국내 GDP에 대한 역사적 분해 ('18~'19)



주 : 과거부터 각 시점까지 발생한 각 구조적 충격에 의해 발생한 실질 GDP의 변화
자료: 저자 추정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지속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

- ❖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큰 상황
 - 최근 미중 관세 휴전에도 불구하고, 이후 재협상 과정에서 마찰이 반복될 가능성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로 주요 교역국들과의 구조적인 갈등은 여전히 지속
 - IMF는 세계 경제 전망(2025. 4)에서 2025~2026년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상정
- ❖ 향후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 경로에 따른 국내 GDP에 대한 조건부 전망 수행
 - 상향 유지: 미국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26년 말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
 - 하향: '26년 말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 ❖ 무역정책 불확실성 상향 유지 시 2025년 국내 GDP 성장률은 0.6%p 하락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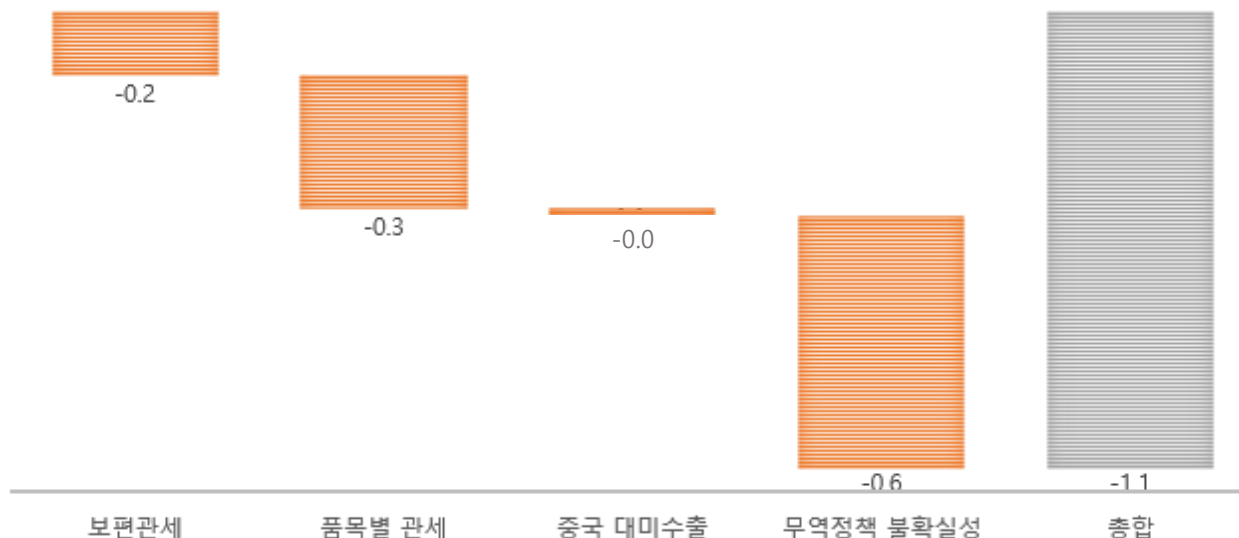
결론 및 대응 방향

종합평가

❖ 관세 부과 뿐만 아니라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정량적 효과가 상당

- 미국 무역정책의 직간접 효과가 국내 성장률을 1%p 하락
 -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IMF): 2.2% ('24.10월) → 1.0% ('25.4월)
- 무역정책 불확실성 효과는 관세의 직접 효과와 유사한 수준

미국의 관세 및 무역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성장률 둔화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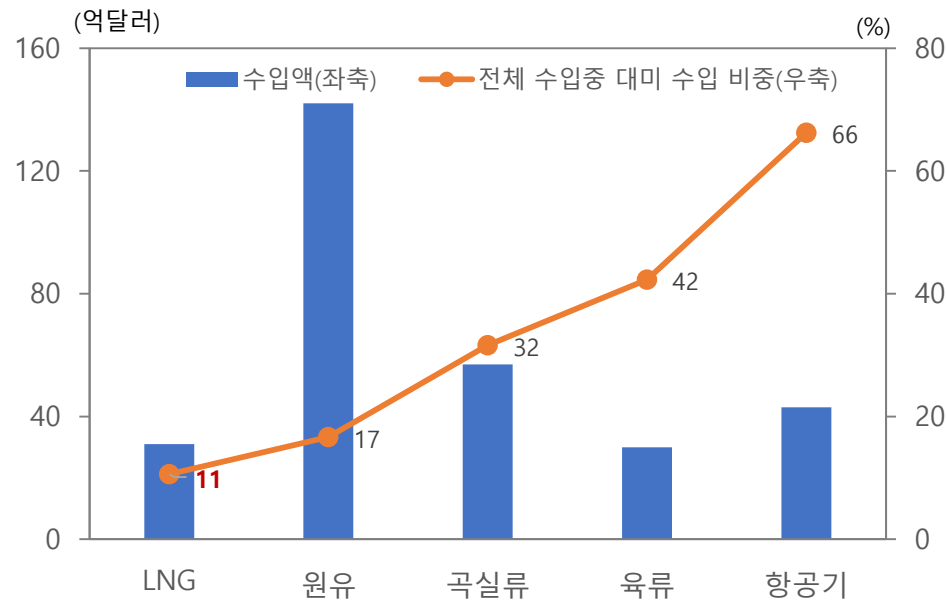


주 : 품목별 관세는 자동차(25%) 및 철강(25%)에 대한 관세부과를 포함하며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2025~2026년중 높게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반하여 산출

대응방향: (1) 불확실성의 축소

- ❖ 상호관세 유예 시한 이전 원만한 무역협상 타결이 이상적
 - 무역정책 불확실성의 장기화를 차단
 - 협상을 통해 여타 수출국대비 경쟁력 있는 관세율 확보가 필요
 - 협상은 대미 흑자를 줄이되 대미 수입을 확대하는 형태로 대응

한국의 품목별 대미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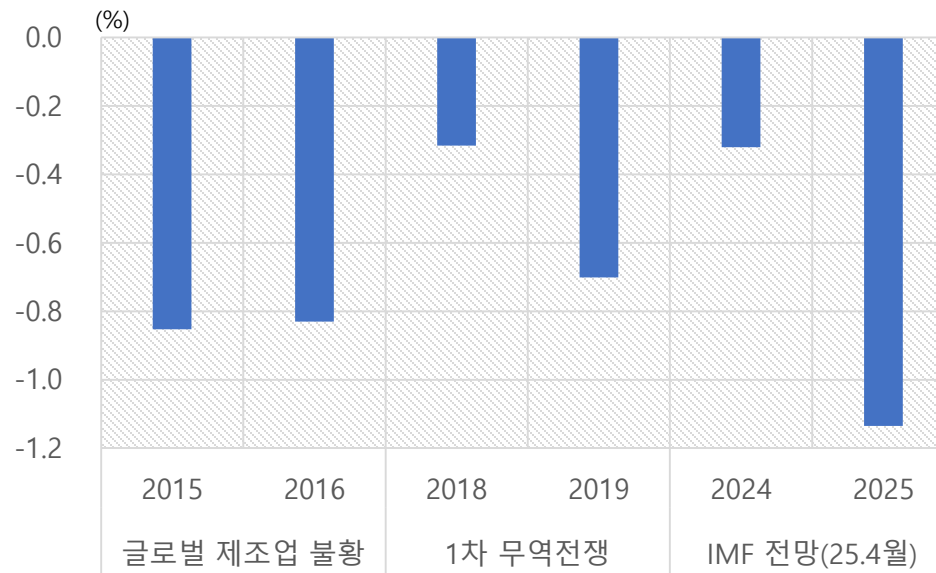
주 : 2024년 기준
자료: 무역협회

대응방향: (2) 성장률 하락에 대응

❖ 완화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대응할 필요

- 대외 수요 악화에 따른 경기위축이 2015년 제조업 불황기를 상회할 전망
- 수요부진 장기화가 잠재성장률을 훼손할 수 있음에 유의
- 중국발 디플레이션 압력 및 달러 약세로 정책 대응 여력이 확대

한국의 GDP 갭



주 : (실제 GDP - 잠재 GDP)/잠재 GDP
자료: IMF

Thank you

본 자료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으로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사전동의 없는 자료 복제 및 배포, 개작 행위를 금지합니다.